

국제학술세미나 개최

독립국가연합고려인 과학기술연합회

독립국가연합고려인과학기술연합회(재CIS과협 회장 최 알렉세이 다닐로비츠)는 11월 25일 동연합회 사무실 강당에서 재러한국인과학기술학회(회장 한상용) 및 모스크바지역지부회(회장 채 프로핌)와 공동으로 제1회 과학기술에 관한 국제학술 세미나를 개최한다.

한·러 양국간의 원활한 과학기술교류와 공동연구, 학문 기술적 성취 등을 목적으로 열린 이번 세미나에서는 수학, 물리, 화학, 생물, 전지 전자, 컴퓨터, 우주항공, 기계, 토목, 건축, 재료공학, 금속공학, 환경에너지, 도시공학, 제련학, 조선공학 분야의 재러시아 교포 또는 러시아학자와 이에 관련있는 한국인 학자가 한조를 이루어 러시아어와 한국어로 발표를 하고 토론도 벌이게 된다. 한편 재CIS과협은 학술대회를 계기로 회보를 창간하여 발표논문을 이 회보에 수록하는 한편 발표논문외에도 모스크바지역지부회명단, 재CIS과협 조직기구표, 재러한국인과학기술학회 회원명단,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소속 연구소의 목록, 기타 관련단체의 목록을

수록하며, 정기적으로 각 유명연구소의 첨단기술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한편 동연합회는 서울에서의 참가자들을 위해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관심분야의 모스크바소재 연구소 방문과 담당자와의 상담을 주선했다.

총회 및 추계학술대회 열려

대한용접학회

대한용접학회(회장 이창희)는 10월21일~22일 양일간에 포항공과대학교에서 정기총회 및 추계학술발표대회를 개최했다.

2백여명이 참가한 이번 행사에서는 김종진사장(포항제철)의 특별강연 「철강산업의 현황과 미래전망」과 강춘식교수(서울대학교 금속공학과)의 '93년도 학술상 수상기념강연 「플라스마 용사에 의해 제조된 단열코팅층의 열피로 파괴 거동」 등 50편의 논문발표가 있었다.

한편 정기총회에서는 학회상시상이 있었는데 학술상에 오세규교수(동아대), 논문상에 김영식교수(한국해양대), 기술상에 성요경이사(대우중공업 옥포조선), 공로상은 라규환이사(두레기계)와 이영호교수(충남대), 그리고 철암논문상은 배강렬박사(현대중공업)가 각각 수상하였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는 또 95, 96년

도 신임회장단으로 회장에 강춘식교수(서울대), 부회장에 한희춘사장(한국용재기술), 라규환이사, 김영식교수, 감사에 정세희교수(전북대), 황선호박사(한국기계연구원)가 선출되었다.

정중 및 기술학술발표회

한국과학사학회

한국과학사학회(회장 오진곤)는 11월5일~6일 양일간 전북대에서 정기총회 및 가을학술발표회를 가졌다.

75명이 참가한 이번 발표회는 박성래교수(한국외국어대)의 「중국의 과학사 연구와 문제점」에 대한 강연과 박창범교수(서울대)와 구자현교수(서울대)의 논문발표에 이어 토론이 있었다. 특히 이날 총회에서는 제3회 학회상 시상식을 갖고 「조선시대 농서에 나타난 목면재배기술」로 논문을 발표한 문중양씨(한신대 강사)에게 논문상을 시상했다.

동학회는 이에 앞서 10월11일에는 대한의사학회(회장 이태준)와 공동으로 서울대 의대에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생물학적 결정론의 내용과 사회적 함의-유전자 안에 있는, 없는가」를 주제로 한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서유현교수(서울의대)의 「분자생물학과 생물학적 결정론」 등 4

명의 논문발표가 있었다.

대기환경 산학협력의 밤

한국대기보전학회

한국대기보전학회(회장 손동헌)는 지난 10월26일 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 제2회 「대기환경 산학협력의 밤」을 개최했다.

1백10여명이 참가한 이번 행사에서는 김종석 국장(환경처 대기보전국)이 「대기배출 허용기준설정 및 운영방향」에 대해 신진박사(에너지경제연구원)가 「그린라운드의 전개와 우리나라의 대응방향」에 대해 각각 주제발표를 했다.

인삼, 마약해독작용 있어

고려인삼학회

고려인삼학회(회장 황우익)는 지난 11월2일 한국인삼연초연구원에서 정기총회 및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18편의 논문을 발표했다.

이번 총회에서는 동학회 학술상 수상자인 김학성교수(충북대 약대)가 수상논문을 발표하면서 지난 10여년 동안 인삼에 대해 연구한 결과 인삼이 마약해독작용이 있다고 밝혔다.

김교수는 우리나라에서 인삼이 전통적으로 마약해독 치료제로 사용돼 온 점에 착안, 이를 동물실험모델을 통해 확인했다고 밝히고 마약 및 향

정신성 약물을 지속적으로 반복투여하게 되면 약물중독의 원인이 되는 중추신경계의 도파민수용체 초과민성 형성 억제작용을 한다는 사실을 규명함으로써 인삼이 정신독성약물의 중독예방 및 치료작용이 있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산학협동워크숍 개최

科總, 환경과학기술워크숍도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는 구랍8일 평화통일사무회의 사무처회의실(예정)에서 '산학협동을 촉진하기 위한 학회와 재외과협의 역할'을 주제로 한 산학협동워크숍을 개최한다.

산학협동을 촉진하기 위한 학회 및 재외과협의 역할을 조감함으로써 산학협동의 효율적인 협동체제의 확립과 실천계획의 활성화를 위해 열리는 이번 워크숍에서는 3편의 주제발표와 관계전문가들의 종합토론이 있게 된다.

특히 이번 워크숍에서는 홍용수씨(한국경제신문논설위원)의 「협동개발 촉진을 위한 총체적 대응방안」에 관한 기초발표에 이어 박한규씨(연세대공대교수)와 김충섭씨(한국과학기술연구원)가 「산학협동 촉진을 위한 학회의 역할」에 대해서 각각 발표를 하고 이진욱씨는 「산학협동 촉진을 위한 재외과협의

역할」에 대해서 주제발표를 하게 된다.

과총은 이에 앞서 5일에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국제회의실에서 환경과학기술워크숍을 개최한다.

이 워크숍에서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노재식위원의 「21세기를 지향한 국가환경정책의 방향」, 한국폐기물학회 김수생회장이 「폐기물 매립기술 현황과 매립지 확보」, 한국에너지기술연구소 오정무위원이 「재생가능에너지 잠재력과 기술개발」에 대해서 각각 주제발표를 할 예정이다.

기술학술대회 열려

대한약학회

대한약학회(회장 정원근)는 지난 10월21일~22일 양일간 제43회 총회 및 학술대회를 서울대 문화관에서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총 3백69편 가운데 27편이 직접 발표됐으며 3백30여편의 논문은 포스터로 발표됐다. 특히 이날 이용석교수(영남대 약대)는 항암제 개발을 위한 타이로신 유도체를 함유한 펩타이드의 디자인 및 합성법을 소개해 관심을 끌었다. 학계, 연구계, 산업체로부터 1천2백여명이 참가해 성황을 이룬 이날 학술대회기간중 「생명공학과 의약품개발」을 주제로

한 심포지엄에서는 유전자를 이용한 신약개발에 관한 논문들이 발표됐다.

한편 총회에서는 지난 9월 23일 평의회에서 선출된 김일혁차기회장(중앙대 약대)의 인준과 함께 7명의 차기부회장을 선임했다. 새로 임명된 부회장은 용군호원장(국립보건안전연구원), 한성순교수(충북대 약대), 황규자교수(숙명여대 약대), 이향우학장(성균관대 약대), 임광식교수(부산대 약대), 문창규교수(서울대 약대)이다. 이번 심포지엄장단의 임기는 95년 1월부터 2년간이다.

또한 이날 총회에서는 95년 사업계획 예산(안)을 심의, 내년도 봄학회를 95년 6월, 학회 80주년 기념행사와 함께 열기로 결정하고 전년대비 6.5% 증액된 1억6천4백만원의 예산(안)을 확정했다.

2대소장에 손영목박사 선임

한국에너지기술연구소

한국에너지기술연구소는 지난 10월27일 이사회를 개최하고 제2대 소장에 손영목박사(54세)를 선임했다.

신임 손소장은 영국 리즈대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한국동력자원연구소 연구부장, 선임부장을 거쳐 지난 91년 11월부터 선임부장으로 재직 중이었다.

차기회장에 김치경교수 인준

한국미생물학회

한국미생물학회(회장 민태익)는 10월21일~22일 충남대학교에서 정기총회 및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첫날 총회에서는 94년도 사업결산보고와 95년도 예산(안)을 확정하고, 지난 10월18일 이사회에서 선출된 김치경차기회장(충북대 교수)에 대한 인준이 있었다. 또한 한국미생물과학회협(회장 김준호) 주관으로 개최된 심포지엄에서는 「21세기를 향한 과학기술발전 전략」과 「우리나라 생명공학육성 기본계획」에 관한 2개 주제에 대한 논문발표가 있었다.

22일에는 David A. Hopwood(영국 John Innes Institute)박사의 "ReProgramming Aromatic Streptomycetes Polyketide Synthase Genes to Make Novel Antibiotics" 외 특별강연 3편과 1백21편이 포스터로 발표되었다.

한편 동학회는 오는 12월10일 서울대학교 문화관에서 한국산업미생물학회(회장 정호권)와 공동주관으로 제2회 한·중생명공학 공동심포지엄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 심포지엄에서는 국내연사 5명, 중국연사 5명 등 총10명이 논문을 발표하게 된다. 